Meritz 조선/기계

MERITZ 메리츠종금증권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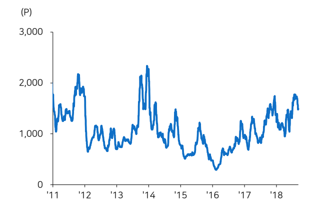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18E	PER(x) 19E	PBR(x) 18E	PBR(x) 19E	ROE (%) 18E	ROE (%) 19E
현대중공업	8,680.3	16.1	125,500	1.2	13.6	3.3	30.8	87.5	41.9	0.6	0.6	0.7	1.4
현대중공업지주	5,969.0	20.7	366,500	0.5	0.0	-2.8	-3.8	4.9	4.1	0.7	0.6	14.1	14.7
현대일렉트릭	633.8	5.3	62,100	1.5	-4.5	-27.8	-45.5	5.9	5.1	0.5	0.5	9.3	9.7
현대건설기계	1,116.0	9.0	113,000	-1.3	-12.7	-30.5	-33.1	7.2	5.3	0.8	0.7	11.7	13.9
삼성중공업	4,731.3	17.9	7,510	0.5	14.0	0.0	16.1	47.4	23.5	0.5	0.4	1.0	1.9
대우조선해양	3,226.9	7.8	30,100	0.7	15.5	13.2	116.5	7.0	19.9	0.9	0.9	13.3	4.5
현대미포조선	1,934.0	9.9	96,700	-0.5	1.5	6.6	22.9	20.9	15.1	0.7	0.7	3.6	4.8
한진중공업	280.0	7.0	2,640	1.5	-6.2	-21.5	-20.2	53.1	13.2	0.4	0.4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797.3	22.3	103,000	10.2	1.0	-11.6	89.3	18.2	17.7	2.5	2.2	14.6	13.3
두산밥캣	3,609.0	26.0	36,000	1.1	6.7	7.2	1.9	13.2	12.4	1.0	1.0	7.4	7.6
현대로템	2,507.5	2.4	29,500	5.9	6.1	-19.4	57.3	38.0	25.9	1.7	1.6	4.5	6.3
하이록코리아	305.6	48.8	22,450	0.4	-3.0	-23.9	-0.2	10.2	9.3	0.9	0.8	8.8	9.0
성광벤드	324.6	16.2	11,350	0.0	4.6	-11.0	13.7	1,003.3	40.7	0.7	0.7	0.1	1.8
태광	327.3	13.1	12,350	-2.0	1.6	-9.9	2.5	73.7	36.0	0.8	0.8	1.0	2.1
두산중공업	1,727.9	14.8	14,750	1.0	-2.6	-20.9	-3.9	24.4	8.9	0.5	0.5	2.6	5.2
두산인프라코어	1,950.4	19.5	9,370	1.1	-5.9	-9.9	7.8	6.2	5.7	1.0	0.9	17.6	16.3
두산엔진	132.0	4.3	4,005	-0.6	8.2	N/A	55.9	-15.4	-20.3	N/A	N/A	-4.5	-8.7
한국항공우주산업	4,230.4	14.5	43,400	2.5	18.9	-6.5	-8.5	36.7	27.0	3.6	3.2	9.6	12.3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399.9	11.6	26,900	5.5	19.6	-16.1	-24.3	34.8	19.1	0.6	0.6	2.2	3.3
LIG넥스원	754.6	9.1	34,300	0.1	1.9	-34.0	-42.6	N/A	N/A	N/A	N/A	N/A	N/A
태웅	296.1	4.8	14,800	0.3	-0.7	-18.7	-23.5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02.4	5.4	7,500	-0.8	9.6	14.9	48.5	-38.5	20.1	2.6	2.4	-6.4	12.4
한국카본	284.4	13.7	6,470	3.7	10.8	4.7	20.7	75.1	19.9	0.9	0.9	1.2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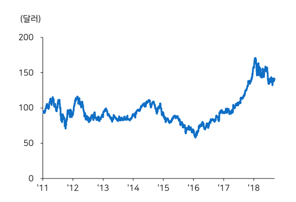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종금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Baltic Dry Index(BDI) : +7 1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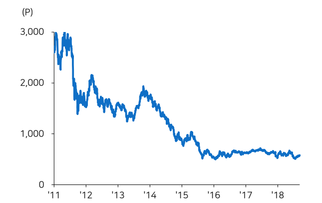


Caterpillar(CommonStock) : -0.25 141.32



중국 내수 후판 가격 (CDSPSPAV Index)

KRX 조선업 지수(KRX Shipbuilding Index)



자료: Bloomberg,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W: 신조선가 지수 129p, 중고선가 지수 99p 기록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29p, 중고선가 지수는 99p로 전주와 동일함. 삼성중공업은 AET Tanker에서 15.3만DWT급 셔틀탱커 1척을 수주했고, 인도는 2020년 4분기로 예정됨. Arkas Shipping은 중국 Huangpu Wenchong에 3,100TEU급 컨테이너선 2+2척을 발주함. (Clarksons)

Saade: interest in Hapag-Lloyd at an end

프랑스계 컨테이너선사 CMA CGM 관계자는 독일계 컨테이너선사 Hapag-Lloyd에 대한 관심을 끊었다고 밝힘. CMA CGM은 올해 초 66억달러로 Hapag을 인수하기 위해 접촉했었다고 알려짐. CMA CGM 관계자는 이번 인수는 중단됐으나, 추가적으로 인수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밝힘. (TradeWinds)

Tsakos Energy seeks to widen LNG presence

Tsakos Energy Navigation(TEN)은 LNG선과 셔틀탱커 선대 확장을 고려한다고 밝힘. TEN은 급격한 기술 변화로 소형 LNG선을 보유하고 있어 더 큰 LNG선 발주를 계획하고 있음. 또 탱커 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나, 높은 정제마진과 높은 정유소 가동률을 고려하면 시장 회복이 예상된다고 전망함. (TradeWinds)

한국 조선, 1~8월 수주 "중국·일본 합친 것 보다 많아"

클락슨에 따르면 한국 조선업계는 8월에 11억달러(10척)를 수주했다고 알려짐. 올해 8월까지 한국은 156.6억달러(172척)을 수주했고, 동기간 중국은 106.1억달러(268척), 일본은 27.9억달러(85척)을 수주함. 한국의 수주량은 중국과 일본 합산 수주보다 많았고, 8월에 세 나라 중 유일하게 수주잔고가 증가함. (EBN)

"현대重 1인당 월인건비 中의 3배…노조 양보없인 해양사업 더 못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해양사업이 구조조정 없이 유지하기 힘들다고 밝힘. 현대중공업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520만원인 반면, 중국은 169만원이며 싱가포르에서 고용하는 제 3국 근로자는 80만원수준으로 알려짐. 해양 총 원가 중 인건비 비중이 국내는 20%인 반면 중국은 6%, 싱가포르는 3%로 알려짐. (매일경제)

CMA CGM 다음 표적은 Evergreen?

업계에 따르면 CMA CGM의 다음 M&A 목표는 대만 Evergreen으로 전망됨. 두 회사는 Ocean Alliance에 함께 속해있고, Evergreen의 인수가격은 약 40억달러로 산정됨. 아시아 시장에서는 두 회사가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루머가 무성하며, 합병된다면 선복량 기준 370만TEU로 세계 2위 선사로 예상됨. (선박뉴스)

IMO 2020 transition period critical to avoid bunker contamination

TEN 관계자는 IMO 환경규제가 준비기간 없이 시행된다면 수많은 선박이 항해 문제와 고장 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함. 저유황유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또 스크러버 장착은 선호하지 않으나, 고객들이 장기 용선된 선박에 장착을 원해 총 12척에 장착할 계획임. (TradeWinds)

삼성중공업, 3년만에 신규인력 채용…조선 빅3 첫 스타트

삼성중공업은 2015년 이후 3년만에 신규채용에 나섰다고 알려짐. 어려운 업황이 지속됨에도, 미래를 위한 인재 영입 필요성으로 신규채용을 재개함. 대우조선해양도 하반기 신규채용을 검토한다고 알려짐. 채용이 실시될 경우 2015년 이후 3년만임. 현대중공업은 하반기에 공채 계획이 없는 상황으로 알려짐. (EBN)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9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9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9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박진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